



## 소문난 융합 교육 현장에서 '개교 5년' 채드윅 국제학교

한바탕 임시 전장을 치르고 나면 수업생 부모들은 흥분해버리지만, 남은 학부모들은 곧 다가올 임시 격장에 자녀 교육을 되돌아보게 된다. 과연 제대로 배우고 있을까, 더 나은 교육은 없을까. 그 해답을 채드윅 국제학교에서 찾았다.

취재 윤해진(코리안서사시인 이영민(iceostudy))

샐리 푸크 윌리 송을 교장은 초등학교 교장도 역임 중이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그의 집무실이 높아져야 한다. 아이와 함께 디자인 타임 시안을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



미국 명문 사립 채드윅 스쿨의 제2캠퍼스인 채드윅 국제학교가 인연 송도에 개교한 지 벌써 5년, 채드윅은 송도의 명문이자 전국 학부모들의 워너비 학교로 자리 잡았다. 채드윅의 인기는 무엇보다 다른 국제학교에 비해 낮은 10% 이하의 중도 탈락률이 증명한다. 재학생이 만족하는 학교라는 것. 입시철을 맞아 교육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는 요즘, 학생이 좋아하는 학교의 비결을 찾아 채드윅 국제학교를 직접 방문했다. 일단 첫인상은 개교 당시인 2010년 취재차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넘치는 느낌. 현재 총 학생 수는 유아원과 유치원부터 11학년까지 870명, 아직 12학년을 열고 2016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재학생 중 약 20% 이상이 외국 국적 학생으로, 무난한 국제학교인 곳과 달리 28개국 출신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과 교사가 함께 공부하고 있다.

### 체험 위주의 주제별 연계 수업

채드윅 국제학교의 수업은 독특하다. 국제 공인 교육 과정인 인태리사립 바칼로레아(B)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하여 핵심 주제(Unit)에 따라 학습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사·수·학·과·학·제2외국어·체육·공민교육·미술·음악 등을 수강하는 중학교(6~8학년)가 있고, 고등학교(9~12학년) 과정 또한 반별로 같은 과목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과목을 연계해서 듣는다.

가장 먼저 들어간 2학년 교실에서는 'How we organize ourselves'라는 제목의 수업이 한창이었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농장에서 미트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수업. 아이들은 오후에 있을 버 베기 실습을 위해 'Floor'란 토끼를 가지고 성장 과정, 생김새, 용도 등 저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조사 중이었다. 교실 한편에는 인큐베이터에서 병아리 부화기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미 일한 마리가 부화했고 또 한 마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이들이 자랑했다. 이런 아이들을 호ốt 하게 바라보던 마크 포터(Mark Potter) 교사는 '매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피어스마켓이 열리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달걀과 텃밭에 직접 심은 채소 등을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마켓에 어떤 과정을 거쳐 물건이 도착하고, 또 그 물건들





1

##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 엘리 투크 윌리 총괄 교감 인터뷰



엘리 투크 윌리 총괄 교감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립 학교 엘브레드 스쿨에서 6년간 교장으로 역임하며 초등 과정 커리큘럼 개발 및 실행을 주도했다. 체트워에서도 초등 커리큘럼 설계를 주도한 엘리 투크 윌리 총괄 교감은 "스스로 탐구해 얻은 결과로 이 사회를 위해 무언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체트워에서 바라는 한 교육 과정의 끝"이라고 강조한다.

○ **체트릭 국제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 중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체트릭은 학생에서 시작해서 발전하는, 학생이 중심인 학교입니다. 아이들 각각의 재능이 무엇인지,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알아내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제가 된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디자인 오소를 집중해 설계한 디자인 탐구 시퀀스입니다. 수업에서 만든 속구공을 예로 들게요. 이 속구공은 안에 배터리가 있어 공을 발로 차면 충전이 되어 불이 들어오요. 전기가 필요한 마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요. 이렇듯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강조합니다. 이런 교육에 체트릭의 핵심 가치인 배려와 책임감이 녹아 있습니다.

○ **왜 창의성과 인성에 주목하시나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근간 자체가 이런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학교는 그런 의지를 발전하게 해주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요. 배움을 위한 배움의 여과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0년 개교 후 벌써 5년이 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어떤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5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5년 동안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 4세 유아반 과정부터 고등 과정까지 14년 동안 아이들을 시포트해줄 수 있는 안정적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고,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계관을 키워나갑니다. 한 가지 더 자랑할 만한 체트워에서는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가족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언어적인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 거 두 부모에 전달하며 확대 가족과 같은 끈끈한 커뮤니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금처럼 해 나갈 거요. 다양성으로 인연식 지역 학교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교육부 연구도 하고 학교 커뮤니티와 연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아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 **현재 신입생을 모집 중인데, 학력을 위한 조건을 해준다면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찾는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알아본 아이야 가능해요. 어떻게 속해 reading, writing, play 매 세 가지만 내놔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라면서 독립적으로 일러나고 생각해요. 두 번째 팁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인데, 지도 아이를 기르려고 있는 학부모한테요. 아이의 매일 밥 책을 읽습니다. 지도에 영어로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도 하요. 그렇게 체트릭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없는데 그 학생들이 공식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요.

○ **입학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매년 상황이 바뀌어서 경쟁률을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어요. 친구가 교육부에서 순번받은 총 정원 2000명의 40%까지 한국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그렇게도 체트릭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없는데 그 학생들이 공식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요. 이는 학부모들이 유학을 위해, 영어 공부 위해서 아이를 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의 목적은 누구보다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 밀은 것을 승복하는 것만요. 여행을 즐기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 완벽한 아이만 없으니까요.



1 **일괄일체 대입부터** 이번 체트릭 도서권 수업은 물론 언어학, 작가 초청 만남의 시간 등이 이루어진다. 2, 3 체트릭에서는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 해결하며, 나아가 또 다른 문제 해결까지 확장하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둔다. 따라서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생각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체트릭의 수업 방식이다.

out and Plan-Go further and Test make and Take action' 등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 해결하며, 나아가 또 다른 문제 해결까지 확장하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둔다. 실제로 한 한국 학생의 워크지를 살펴보니 완벽한 영작문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티업의 공간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not so big not so small, they will sleep, eat, have fun'이라 채워 넣는 등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글로벌 시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성과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이 중요하다. 현재 체트워에서 시행 중인 수업 방식은 글로벌 시대에 안성맞춤인 셈. 그러나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등 교과서 위주의 정형화된 국내 교과 과정과 비교했을 때 꼭 놀이처럼 보이는 이 낯선 융합 교육이 과연 효과 가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엘리 투크 윌리 교감 역시 한국 학부모들의 불안함을 이해한다.

"디자인 탐구 시퀀스를 통해 아이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무언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려면 창의성과 수학 능력, 디자인 능력이 필요하죠. 체트워에서는 이런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는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의 성장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지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물론 체트워에도 표준화된 평가 제도가 있고, 학생별로 많은 학습량을 소화한다.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생의 경우 더욱 할 일 많다. 체트릭 고등학생의 약 80%가 북미 지역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 내에서 단기간 머물며 대학 본교에서 수업을 받고 SAT 시험까지 응시하고 오는 일정도 잡혀있다. 유학을 목표로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그러나 교육이란 단순히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이상이라는 신념을 지닌 체트워에선 학부모에게 진학 환경보다 교육 철학을 먼저 설명한다. 이날 어느 교실에 가도 볼 수 있었던 질문에는 '데 주저함이 없던 아이들을 떠올리니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아이들은 체트워에 영어를 배우러 오지 않는다. 잠재력을 발견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영어가 쓰일 뿐이다.'